

요약

상반기 서울시민 체감경기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0년 1/4분기 82.8로 전 분기 대비 10.5p 감소했다가 2/4분기에는 전 분기보다 3.3p 올라 86.1을 기록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020년 들어 2분기 연속 하락해 72.4를 기록했으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1/4분기에는 전 분기보다 3.7p 하락한 85.4이었지만 2/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5.9p 반등하며 91.3을 기록했다.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도 2분기 연속 하락해 2/4분기에 각각 95.3, 81.3을 기록했다.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상반기에 「식료품비」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2/4분기에는 「문화·오락비」가 63.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민 4명 가운데 3명꼴 “비대면 소비활동 경험”

서울시민의 비대면 소비활동 경험 비율은 74.7%로 조사되었다. 비대면 소비활동 유경험자는 평균 주 2.3회 비대면 소비활동을 하며 주로 ‘음식’과 ‘쇼핑’ 분야에서 비대면 소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방식 선호 분야는 ‘오락’(70.7%), ‘금융’(70.4%), ‘쇼핑’(60.1%) 순으로 분석되었다. 비대면 소비 선호 이유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비대면 소비활동 유경험자는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도 대체로 비대면 소비를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80.1%)하였으며, 무경험자도 비대면 소비활동 의향(33.6%)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대면 소비활동이 경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53.4%로 집계되어 앞으로 서울시민의 비대면 경제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 BSI는 상승으로 전환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BSI」는 3월에 29.4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5월에는 88.4로 반등했다. 6월 소상공인 「전망경기 BSI」는 97.3으로 3월 이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준치(100)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전통시장의 상반기 「체감경기 BSI」는 2월(20.6)에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5월에는 106.4를 기록하였다. 전통시장 「전망경기 BSI」는 5월부터 기준치 이상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대비 지원 정책 ‘급선무’

민생현장 인터뷰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지속적인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사, 꽃집, 코인노래방 등 취약 업종의 매출 타격이 심각한 편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임대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개별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은 전염병 확산으로 말미암은 특수한 상황임을 공감하며 마스크 공급 등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 중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되어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등 활용 증가가 일부 매출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와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외 업종 등에도 차별적이지 않은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